

지역 소식통

올 공모사업 발굴 추진상황 논의

고창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내달 1일부터 추가 신청 접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의 복지와 건강관리 향상, 문화·학습활동을 지원하며 산락 농정을 실현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의 3차 신청접수를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차 추가 접수 전 1, 2차 신청을 받았을 때 고창군은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1582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컸다. 군은 다양한 문화·학습활동을 할 수 있어 여성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생생카드'의 지원 대상 연령층과 사용처를 늘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5세 이상 65세(1952.1.1.~1992.12.31.)까지의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여기에는 결혼한 만 20세 이상~만 24세(1993.1.1.~1997.12.31.)인 농업인도 포함되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0,000㎡ 미만인 농가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경찰서, 의무위반행위 근절 특별점검기간 운영

정읍경찰서는 경찰서 각 과·계·지·파출소 사무실을 찾아 의무위반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근 대선을 앞두고 복무기간 해이사례가 빈번하므로, 쏠 감찰인력을 동원한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여 조직 전반에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캠페인,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이상찬 청문감사관은 "특히 5.9. 대선을 앞두고, 경찰관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와 기강의 확립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 동료에게 부담을 주는 비인권적 행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359개 야간 위치표시등 설치

고창군이 고창읍 월곡 근린공원 주변에 야간 위치 표시등을 설치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의 일환으로 월곡 근린공원 일원에 2900여만원을 들여 458m에 359개의 발광형 태양광 표지등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태양광 표지등이 설치된 월곡 지구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과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들과 아동 등 야간 및 새벽에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군은 사전에 고창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장소를 선정했다.

박우정 군수는 "표지등 설치로 밤길을 보다 환하게 밝혀 범죄 심리를 차단하는 등 안전 취약 지역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김생기 시장, "대형 국책사업 발굴 등 국가 예산 확보 총력" 당부

정읍시는 27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김생기 시장의 직접 주재로 부시장과 국·과·소장, 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공모사업 및 2018년 국가예산사업 추진 상황 2차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시정 주요시책과 연계할 신규·핵심사업과 공모사업을 조기에 발굴해 국가 예산 신청 이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위 사업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모사업 관련, 시는 올해 19개 부서에서 중앙부처 주관 74개, 전북도 주관 15개 등 모두 89개 사업(601억4000만원)에 응모했거나 응모할 계획이다. 이중 이달 20일 현재 113억 규모의 공공서비스주택건설사업과 60억 규모의 정읍 구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 모두 31개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인 신규사업 추가 발굴에 나서는 한편 응모한 사업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중앙부처별 정책과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물론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논리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체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18년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 사업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원사업과 정읍경찰서 신축 등의 계속사업과 유류저수지 자원화 사업과 기상인체합교육관 시설 확충 등의 신규사업 모두를 포함해 160개 사업이다.

김생기 시장은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는 재

원이 부족한 지자체 성장 동력 확보의 탄탄한 디딤돌이다"며 "전략적인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전 직원들이 획기적인 국가예산사업의 추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5월 부처 예산 편성, 6.7월 기재부 예산 편성, 8~10월 국회 예산심의 등 각 단계별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항우공무원, 전북도 등과의 탄탄한 공조체제를 갖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5월 9일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각 부처 조직 개편과 주요 정책, 대선공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대형 국책사업과 신규 국가예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서 올해 첫 모내기 시작

부안군의 올해 첫 모내기가 27일 진서면 진서들 냇 김치빈(60세)씨 농가 1.6ha의 논에서 지난해보다 이틀 늦게 시작됐다.

첫 모내기는 극 조생종인 조평벼로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으며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이 적기 영농이 추진된다면 추석 전인 오는 9월 상순에는 햅쌀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은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5월 한 달 간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못자리상토와 병해충 공동방제약제, 유기질

비료, 육포과종기, 종자소독기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기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김중규 부안군수는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이른 새벽부터 모내기에 여념이 없는 농가를 격려했다.

특히 김 군수는 "이번 첫 모내기부터 앞으로 있을 지역 내 모내기 작업이 탈 없이 잘 이뤄져 모든 농민들이 풍년을 맞보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품질 쌀 생산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2019년 전북도민체전' 유치 확정

2만5000여명 방문 예상...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2019년 '제56회 전라북도민체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전했다.

군은 지난 24일 전라북도체육회 7차 이사회에서 '제56회 전라북도민체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고창군은 지난 2001년(제38회)과 2010년(제47회) 두 번의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다시 개최하게 됐다.

군은 탄탄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

으로 그간 고창군체육회와 더불어 대회 유치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이번 대회 유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체육시설로 인정받은 군립체육관을 비롯해 공설운동장, 생활아구경기장, 생활야구경기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온 노력과 고창군과 고창군체육회,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지 등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도민체전을 유

치하면서 다시 한 번 스포츠 강군 고창군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56회 전라북도민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화합체전의 한마당이 되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4월 중 고창공설운동장의 보조경기장에서 3일간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14개 시·군에서 39개 종목에 임원·선수단 등 2만5000여명이 고창군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오복마실축제, 관광객·주민 편의 대폭 증진

방송시설 확충·행사 안내시스템 도입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축제에서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시켰다.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부안군 부안읍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는 '군민의 행복 마실, 국민의 오복 마실'을 슬로건으로 5개 분야 총 47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매년 새로운 프로

그램으로 축제를 기획한다는 자세로 프로그램별 신선함을 더해했으며 축제 운영에서도 개선점을 마련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방송시설을 설치해 주요 행사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체험 부스 중앙에 그늘막을 설치해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의 축제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또 추억의 오복 마실 운동회와 오복 마실 킬러콘텐츠 등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으며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투어버스도 운영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오복마실축제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축제"라며 "축제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시가지 곳곳 화사한 꽃 만발

화사한 봄꽃들이 정읍의 봄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시가지 곳곳에 조성돼 있는 화단과 공원에 원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내면서 산뜻하고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것.

선명한 일색의 튤립과 형형색색의 팬지, 진분홍의 꽃잔디, 진분홍의 철쭉들이 펼쳐는 다채로운 색들의 조화가 멋들어지다.

특히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내장단풍생태공원은 철쭉과 돌단풍, 홍도화, 꽃잔디, 단풍나무 등 각양각색의 꽃들과 나무가 어우러져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가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어둠이 내리면 은은한 조명들이 불을 밝혀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정경의 색다른 모습을 즐길 수 있어 좋다"며 "튤립이 화려하게 피어 있어 사진도 찍고 기분 전환도 할 수 있어 좋고, 자주 찾고 싶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봄 향기로 가득한 사계절 관광도시인 정읍을 방문객들이



찾고, 보고,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조성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 봄 시가지 화단과 공원에 팬지 12만본, 튤립 4만본, 꽃잔디 4만 3천본을 심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청보리밭!

제14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17. 4.22(토) ~ 5.14(일) 23일간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